

# 📽 영화 <18원> – 시나리오 대본 (수정본)

---

## 프롤로그 (5분) – 룬살롱의 동전

### INT. 룬살롱 – 밤

어두운 룬살롱. 판사 다섯 명, 마담 둘. 술잔 부딪히는 소리.

- 판사1(재건축): “나한테 18원 소송 건 미친놈이 있지.”
- 판사2(저작권): “그 놈, 나한테도 걸었더군.”
- 판사3(총주): “아, 나도 알아. 공장 짓겠다고 법원 들쭉셨던 놈이지.”
- 판사4(강제추행): “나는 강제추행으로 감옥에 보냈다.”
- 판사5(무고): “난 무고로 2차 감옥행! 콤보 성공이지.”

판사들 합창: “감자! 또 감자!”

마담: “다섯 명이니 90원이네요. 제가 갚아드릴게요.”

👉 마담이 100원 동전을 굴린다.

👉 동전이 빙글빙글 돌다 판사1의 양복 주머니 속으로 ‘톡’.

다음날 아침. 판사1, 숙취에 시달리며 동전을 만지작거린다.

- 판사1(중얼): “...감자.”

👉 타이틀: <18원>

---

## 시퀀스 1 – 재건축과 위조

발명가 출신 주인공, 재건축 조합과 대기업의 유착으로 위조된 동의서에 휘말려 20년간 보상을 받지 못한다.

- 김중학: “위조된 서류입니다!”  
하지만 판사는 대기업 편에 선다.  
👉 그의 땅에 파란 인장이 찍히고, 꿈은 무너진다.
- 

## 시퀀스 2 – 총주 공장

발명(검용안정기·어항 특허)으로 돈을 모아 총주에 큰 공장을 설립하려 한다.

### INT. 작업실 – 낮

김중학, 땀 흘리며 발명. 특허증과 설계도, 공장 설립 계획서.

- 내레이션: “정직하게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고 믿었다.”

### EXT. 총주 부지 – 낮

넓은 10,000평 대지. 바람에 휘날리는 설계도.

- 김중학: “여기가 시작이다. 공장이 세워지면 수백 명이 일할 수 있어.”

👉 건설공사업자, 은밀히 전화.

👉 총주시 공무원과 만남. 뒷주머니 돈봉투.

## INT. 법정 - 낮

검사: "충주시 공무원, 불법 인허가 조작!"

판사: "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."

☞ 김중학, 방청석에서 이를 악문다.

## INT. 김중학 방 - 밤

책 더미, 형사소송법 판례집, 뻑뻑한 노트.

- 내레이션: "변호사 없이, 혼자 싸웠다."

☞ 2심 법정. 판사: "피고인 무죄. 원심 파기."

☞ 김중학, 두 손 움켜쥐며 미소.

☞ 대법원 확정.

## EXT. 충주 부지 - 낮

다시 반려처분.

판사: "청구 기각."

☞ 김중학 표정 무너진다.

## EXT. 충주 부지 - 황혼

설계도 찢겨 흩날리고, 잡초 무성.

☞ 카메라 줌아웃. 쓸쓸한 현악기.

---

## 시퀀스 3 - 저작권 사건

- 김중학: "법이 무기라면, 나도 법으로 무장한다."
- 밤, 책과 법령집 가득.
- 저작권 등록증 클로즈업.
- 검사: "법원 자료 무단 복제!"
- 김중학: "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!"
- 심봉기(한국저작권위원회 심사관): "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."
- 판사: "국민참여재판은 안 한다."
- 압수수색영장 남용.
- 판사: 벌금 700만 원.

☞ 김중학: "이게 정의입니까?"

---

## 시퀀스 4 - 재건축 재심

### INT. 대법정 - 낮

- 김형두 판사: "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.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습니다."

☞ 다음 기일, 방청객 20명.

- 김형두: "김중학 씨, 존경합니다. 재심사유 맞습니다. 다투어봅시다."

☞ CUT - 지에스건설 로비.

☞ 자막: 김형두 판사, 돌연 일산 발령.

☞ 새 판사: "원고 패소."

---

## 시퀀스 5 – 김백기 사건 (삽화)

### 5-1 – 새집으로 가는 길

- EXT. 새 아파트 단지 – 낮.  
어머니: “백기야, 이제 새 출발이구나.”  
☞ 과속 차량 돌진, 추돌. 슬로모션.

### 5-2 – 가해자의 둔갑

- 경찰서 조사실. 구로시 공무원 운전자, 돈 봉투.  
☞ 신문: “가해자: 김백기.”

### 5-3 – 법정의 배신

- 판사: “피고 김백기를 가해자로 확정한다.”  
☞ 어머니 장례식. 휠체어 탄 김백기.

### 5-4 – 김중학과 만남

- 김백기: “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살고 있습니다.”
- 김중학: “재심 사유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.”

### 5-5 – 현장검증 거부

- 김백기: “현장검증을 해주십시오.”
- 김대웅 판사: “저기 김중학 씨가 방청하고 있습니다. 내가 허위 재판을 하겠습니까?”  
☞ 보험사 변호사, 판사실로. 문 닫힘 소리.

### 5-6 – 판결과 항의

- 판사: “원고 패소.”
- 김백기 절규: “어머니... 저는 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!”  
☞ 법원 앞. 김중학, A4 목걸이: “나는 김대웅 재판에 팔렸다.”  
☞ 시민들 외면. 암전.

---

## 시퀀스 6 – 18원 소송

- 김중학: “정의의 값어치는 18원입니다.”  
☞ 신문: ‘18원 소송, 사법부 도전 (35명, 110건)’.

---

## 시퀀스 7 – 판사들의 연회 (1차)

### INT. 룸살롱 – 밤

판사들 합창: “감자! 또 감자!”

☞ 술잔 부딪히는 소리 ↔ 교도소 문 닫히는 소리 교차.

---

## 시퀀스 8 – 강제추행 사건 (1·2차 무혐의)

- 신영애: “그가 날 추행했습니다.”
  - 경찰: “증거 불충분, 무혐의.”  
☞ 2차도 무혐의.
  - 김중학: “이젠 내가 무고로 고소한다.”
-

## 시퀀스 9 – 강제추행 사건 (3차 유죄)

- 판사: “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... 유죄.”
    - 👉 징역 8개월.
    - 👉 독방. 김종학, 『실무제요』 페이지 뜯어 벽에 붙인다.
  - 김종학: “정의는 없다. 내가 쓰겠다.”
- 

## 시퀀스 10 – 판사들의 연회 (변주)

### INT. 룬살롱 – 밤

- 판사1: “그 놈이 또 걸려들었어!”  
판사들 합창: “감자! 또 감자!”
    - 👉 술잔 부딪히는 소리.
    - 👉 교도소 문 닫히는 소리 교차.
    - 👉 김종학, 독방 벽에 선 굵는 장면 전환.
- 

## 시퀀스 11 – 무고·위증 사건 / 불법 구속 과정

### INT. 법정 – 낮

- 👉 자막 표 형식:
    - 2022.10.19 – 3차 구속기간 갱신 (형사소송법 제92조 위반)
    - 2022.12.19 – 별건구속 영장 (헌법 제37조 위반)
    - 2022.12.22 – 구속적부심 거부 (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반)
    - 2023.02.15 – 4차 구속 연장 (형사소송법 제92조 위반)
    - 2022~2023 – 공판 지연 (형사소송법 제267조 위반)
  - 👉 김종학, 감옥 벽에 날마다 선 굵는다.
- 

## 시퀀스 12 – 법정의 절규

판사들 건배 장면 ↔ 김종학 최후 진술 교차.

- 김종학: “법관에게,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가?”
    - 👉 정적. 판사들 무표정.
- 

## 시퀀스 13 – 유엔 인권회의

### INT. 제네바 회의장 – 낮

김종학, 연단에서 18원 동전, 위조 문서, 공장 설계도 들어 보인다.

- 김종학:  
“이것이 제가 20년간 싸운 증거입니다.  
18원에 정의를 판 나라.  
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?”
    - 👉 회의장, 침묵.
-

## 시퀀스 14 – 에필로그

EXT. 충주 공장 터 – 황혼

잡초 사이 작은 꽃 한 송이.

👉 동전 굴러가는 소리.

👉 암전. 타이틀:

“법관에게,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가?”

👉 부제:

사법피해자(삼청교육대, 형제복지원)를 지원한다.

지퍼 대신 자석 하의 특허로 새로운 공장을 계획한다.